

SK이노베이션, 보수적 경영틀 깬다!

출퇴근 시간 자율화 탄력근무제 전격 도입 ... 국내 정유기업 최초로

국내 최대 에너지기업인 SK이노베이션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SK이노베이션(대표 구자영)에 따르면, 5월부터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팀별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탄력근무제는 이미 삼성전자 등 많은 곳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가장 기업문화가 보수적인 정유기업에서 도입하는 것은 SK가 처음이다.

최근 최태원 회장이 신입사원과의 대화에서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제시간에 나와서 같은 시간에 일을 해야만 최고의 성과가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창조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굳이 9시까지 나올 이유가 없다”며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이 큰 도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구자영 사장도 도전·창의·긍정을 경영철학으로 내세우면서 고루하고 보수적인 정유기업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화의 일환으로 SK이노베이션에서는 징검다리 연휴가 끼어있는 5월 초 여름휴가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따라 최대 15일까지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과거 정유기업 하면 가장 보수적이고 고루한 기업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최태원 회장과 구자영 사장이 창의경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업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며 “탄력근무제 도입이라든가 휴가를 권장하는 분위기도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03>